

## 보육시설 급식에 대한 부모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

송은승·김은경<sup>†</sup>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A Study of Parents' Satisfaction and Needs for Foodservice Quality of the Childcare Centers in Chungnam Asan Area

Eun Seung Song, Eun Gyung Kim<sup>†</sup>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Hoseo University, Asan, Korea

#### Abstract

We tried to find out parents' satisfaction and needs for foodservice quality of the childcare centers with an intention of improving it. Self-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randomly collected from the parents of children in 174 childcare centers around Asan and were analyzed. Most of respondents were mothers who were housewives with college degrees (69%) in their 30's (80%). They thought nutrition (50%) and food hygiene (43%)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decision. Eighty percent of parents recognized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foodservice quality and childrens'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Most centers (94%) were delivering menu notices home, so parents well recognized the center's foodservice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ir kids' eating habits. The parents' satisfaction scores were 3.26 out of 5-point scale. The biggest dissatisfaction was from no variation in menu, but remarkable appreciation was from the effect of foodservice on the correction for kids' unbalanced diet habit. They had demands for improvement of nutritious menu and professional nutrition teacher in charge of foodservice and nutrition education for children and also for parents. (*Korean J Community Nutr* 16(4) : 497~510, 2011)

**KEY WORDS :** parents' satisfaction an needs · foodservice quality · childcare center · nutrition education

#### 서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사회적 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보육이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그 동안 각 부처별로 실시해 오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건사회부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단순히 보호기능에 그쳤던 탁아로부터 교육과 보호기능을 포함하는 보육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1992년 8월 아동복지법령상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었던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일반법인단

체는 물론 개인까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영·유아사업의 시설 확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Park 1998).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와 동시에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는 영·유아가 증가하면서, 부모들의 요구에 맞추어 영·유아교육이 실시되며, 이것이 곧 '보편적인 교육'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비 취업 여성들 또한 보육부담과 영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보육서비스의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양적성장은 더욱 가속되었지만 보육시설의 숫자 늘리기 식 성장은 곧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저하로 문제를 드러냈다(Lee 2005). 또한 법적 설치요건의 완화로 보육시설의 유형이 국·공립, 법인, 민간개인, 가정 등으로 나누어지면서 표준화된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시설확충 과정에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증가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 국·공립, 법인시설보다 민간개인시설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Ministry for Health and

접수일: 2011년 7월 1일 접수

수정일: 2011년 7월 26일 수정

채택일: 2011년 8월 26일 채택

<sup>†</sup>Corresponding author: Eun Gyung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Hoseo University, 165 Sechul-li, Baebangmyon, Asan 336-795, Korea

Tel: (041) 540-5632, Fax: (041) 548-0670

E-mail: ch15245@hanmail.net

Welfare 2008). 보육시설의 질적수준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제도에 따라 질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국·공립, 법인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 비하여 재원 아동수가 적은 민간개인, 가정시설과 같은 소규모시설은 인력의 부재와 시설여건의 미비 등의 문제로 평가인증을 부여받기 힘든 실정으로서 각 시설 유형간의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으며 실제적 개체수와 영·유아 수용인원이 많은 민간개인, 가정시설이 관리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관심 대상은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사,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최근 보육시설의 급식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이 많이 보도됨에 따라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안전, 영·유아 영양 및 식생활 교육에 까지 관심과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의 영양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가 양호하면 지적능력, 학업성취 욕구와 인지작용 등이 우수하며(Kim 등 1993),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어린이가 불규칙적인 어린이보다 인지능력이 높았다고 하였다(Kim & Shim 1995).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시설 유아들의 영양소 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이 1일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며 일부에서는 지속적인 영양과잉 섭취에 따른 영양과다 문제를 초래하여 영양불량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Bae 1994; Kim 등 1996; Cho 2000; Lee & Lee 2000; Ryou 등 2004; Lee 등 2006).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면서 보육시설 급식의 운영실태, 위생실태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Ryu & Park 2003; Shin & Lee 2005; Lee 2006; Song & Kim 2009)가 행해졌고,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급식의 계획과 배식을 급식관리 전문가가 아닌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등 1996; Koh 2001; Lee 등 2001; Ryu & Park 2003; Nam 2006). 또한 보육시설 급식의 소비자인 영·유아 부모의 관심에 대하여 보육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급식내용과 관리 또는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식생활 문제, 영양문제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정보를 교환하여 영양교육 및 식생활교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대규모 시설에서만 이루어 질 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시설은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로 보아 보육시설의 유

형별로 급식운영관리기준과 평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라는 특성상 소비자의 만족도와 요구도 등이 반영되지 않는 개선기준이라면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시설 급식의 질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소비자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보육시설 급식의 질 향상 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충남 아산에 소재하는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민간개인, 가정)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9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350부를 배포하여 이중 265부를 회수(75.7%) 하였으며, 이중 유효자료 235부를 통계에 사용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Shin & Lee 2005; Lee & Lee 2006)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고, 국·공립, 민간개인, 가정시설을 각 2개씩 선정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를 통해 사전 예비조사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고,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훈련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아산시 지역을 시내, 구심, 신도시 인접구역으로 나누어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오후 어린이집 등원, 하원 시간에 맞춰 부모들에게 제과제빵 교환권이 부착된 설문지를 일괄 배포 후 인접 지역 제과점을 통해 회수하였으며 또한 훈련된 조사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영·유아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크게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일반사항,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일반사항과 부모의 급식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및 요구도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일반사항은 연령, 학력, 직업, 수입에 대한 내용과 자녀의 일반사항은 연령, 보육시설 입소시기, 시설에 머무는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보육시설의 일반사항은 급식제공형태, 급식횟수, 급식비, 식재료, 급식 관리자의 유무 등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인식도는 보육시설 및 급식에 대한 인식도, 급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와 가정에서 자녀의 영양 및 식생활 지도 시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만족도는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급식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만족도 및 급식비에 대한 만족도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부모의 요구도는 급식 개선에 대한 요구,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영양 및 식생활교육과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 처리

본 조사의 자료는 SPSS Statistics 12.0을 이용하여 분석 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급식현황에 대한 항목들은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고, 만족도와 요구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조사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항목별로 유형별 보육시설간의 차이는  $\chi^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변인간의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분석과 던컨검정 (Duncan's multiple ra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 대상의 일반사항

1) 부모의 일반사항

본 조사의 응답자인 부모의 연령 및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Foundation type				Total	$\chi^2$
		National public	Corporation	Private	Home care		
Age	20 - 29	0 ( 0.0) <sup>1)</sup>	5 ( 10.9)	10 ( 8.8)	8 ( 14.3)	23 ( 9.8)	8.781
	30 - 39	15 ( 75.0)	37 ( 80.4)	94 ( 83.2)	41 ( 73.2)	187 ( 79.6)	
	40 - 49	5 ( 25.0)	4 ( 8.7)	9 ( 8.0)	7 ( 12.5)	25 ( 10.6)	
Education (father)	Highschool	9 ( 45.0)	9 ( 19.6)	30 ( 26.5)	22 ( 39.3)	70 ( 29.8)	11.812
	University	10 ( 50.0)	30 ( 65.2)	75 ( 66.4)	30 ( 53.6)	145 ( 61.7)	
	Graduate school	1 ( 5.0)	6 ( 13.0)	8 ( 7.1)	3 ( 5.4)	18 ( 7.7)	
	No answer	0 ( 0.0)	1 ( 2.2)	0 ( 0.0)	1 ( 1.8)	2 ( 0.9)	
Education (mother)	Highschool	11 ( 55.0)	15 ( 32.6)	40 ( 35.4)	18 ( 32.1)	84 ( 35.7)	8.628
	University	7 ( 35.0)	28 ( 6.1)	66 ( 58.4)	31 ( 55.4)	132 ( 56.2)	
	Graduate school	0 ( 0.0)	0 ( 0.0)	1 ( 0.9)	2 ( 3.6)	3 ( 5.4)	
	No answer	2 ( 10.0)	3 ( 6.5)	6 ( 5.3)	5 ( 8.9)	16 ( 6.8)	
Job (father)	Public official & office worker	9 ( 45.0)	26 ( 56.5)	49 ( 43.4)	13 ( 23.2)	97 ( 41.3)	26.989*
	Self-management	2 ( 10.0)	4 ( 8.7)	23 ( 20.4)	15 ( 26.8)	44 ( 18.7)	
	Professional job	3 ( 15.0)	7 ( 15.2)	20 ( 17.7)	11 ( 19.6)	41 ( 17.4)	
	Production	2 ( 10.0)	4 ( 8.7)	12 ( 10.6)	10 ( 17.9)	28 ( 11.9)	
	Service	2 ( 10.0)	1 ( 2.2)	6 ( 5.3)	1 ( 1.8)	10 ( 4.3)	
	The others	1 ( 5.0)	4 ( 8.7)	1 ( 0.9)	4 ( 7.1)	10 ( 4.3)	
	No answer	1 ( 5.0)	0 ( 0.0)	2 ( 1.8)	2 ( 3.6)	5 ( 2.1)	
Job (mother)	Housewife	14 ( 70.0)	37 ( 80.4)	79 ( 69.9)	40 ( 71.4)	170 ( 72.3)	23.194
	Professional job	2 ( 10.0)	1 ( 2.2)	7 ( 6.2)	5 ( 8.9)	15 ( 6.4)	
	Public official & office worker	1 ( 5.0)	3 ( 6.5)	6 ( 5.3)	0 ( 0.0)	10 ( 4.3)	
	Service	0 ( 0.0)	1 ( 2.2)	8 ( 7.1)	1 ( 1.8)	10 ( 4.3)	
	Self-management	1 ( 5.0)	0 ( 0.0)	3 ( 2.7)	4 ( 7.1)	8 ( 3.4)	
	Production	0 ( 0.0)	0 ( 0.0)	0 ( 0.0)	2 ( 3.6)	2 ( 0.9)	
	The others	0 ( 0.0)	2 ( 4.4)	3 ( 2.7)	2 ( 3.6)	7 ( 3.0)	
	No answer	2 ( 10.0)	2 ( 4.4)	7 ( 6.2)	2 ( 3.6)	13 ( 5.5)	
Income (10,000 won)	Under 100	0 ( 0.0)	0 ( 0.0)	1 ( 0.9)	0 ( 0.0)	1 ( 0.4)	30.940
	100 - 200	2 ( 10.0)	2 ( 4.3)	6 ( 5.3)	9 ( 16.1)	19 ( 8.1)	
	200 - 300	8 ( 40.0)	10 ( 21.7)	37 ( 32.7)	20 ( 35.7)	75 ( 31.9)	
	300 - 400	6 ( 30.0)	18 ( 39.1)	39 ( 34.5)	13 ( 23.2)	76 ( 32.3)	
	400 - 500	4 ( 20.0)	10 ( 21.7)	15 ( 13.2)	4 ( 7.1)	33 ( 14.0)	
	500 - 600	0 ( 0.0)	4 ( 8.7)	7 ( 6.2)	2 ( 3.6)	13 ( 9.8)	
	600 - 700	0 ( 0.0)	0 ( 0.0)	3 ( 2.7)	1 ( 1.8)	4 ( 1.7)	
	700 - 800	0 ( 0.0)	1 ( 2.2)	1 ( 0.9)	4 ( 7.1)	6 ( 2.6)	
	Over 800	0 ( 0.0)	0 ( 0.0)	0 ( 0.0)	1 ( 1.8)	1 ( 0.4)	
	No answer	0 ( 0.0)	1 ( 2.2)	4 ( 3.5)	2 ( 3.6)	7 ( 3.0)	
Total		20 (100.0)	46 (100.0)	113 (100.0)	56 (100.0)	235 (100.0)	

1) N (%)  
\*: p < 0.05

부모의 연령은 30대 187명(79.6%), 40대 25명(10.6%), 20대 23명(9.8%)으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에 대해 아버지는 대졸 145명(61.7%), 고졸 70명(29.8%), 대학원 이상 18명(7.7%), 무응답 2명(0.9%)으로 대졸이상이 많았으며, 어머니는 대졸 132명(56.2%), 고졸 84명(35.7%), 대학원 이상 3명(5.4%), 무응답 16명(6.8%)로 어머니 역시 대졸 학력이 많았다. 부모의 직업에 대한 조사에서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공무원 및 회사원 97명(41.3%), 자영업 44명(18.7%), 전문직 41명(17.4%), 생산직 28명(11.9%), 서비스업 10명(4.3%), 기타 10명(4.3%), 무응답 5명(2.1%)으로 공무원 및 회사원(41.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주부 170명(72.3%), 전문직 15명(6.4%), 공무원 및 회사원 10명(4.3%), 서비스업 10명(4.3%), 자영업 8명(3.4%), 생산직 2명(0.9%), 기타 7명(3.0%), 무응답 13명(5.5%)으로 조사되어 이 지역은 주부(72.3%)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계 소득은 300~400만원 76명(32.3%), 200~300만원 75명(31.9%), 400~500만원 33명(14.0%), 500~600만원 19명(9.8%), 100~200만원 13명(8.1%), 700~800만원 6명(2.6%), 600~700만원 4명(1.7%), 100만원 미만 1명(0.4%), 800만원 이상 1명(0.4%)으로 중산층 가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영·유아의 일반사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 및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의 연령은 만 5세 119명(41.9%), 만 4세 61명(21.5%), 만 3세 60명(21.1%), 만 2세 37명(13.0%), 만 1세 5명(1.8%), 6개월 이후 2명(0.7%)로 조사되어 만 5세(41.9%)가 가장 많았다( $p < 0.001$ ).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기 시작한 연령은 만 3세 98명(39.4%), 만 2세 59명(23.7%), 만 4세 54명(21.7%), 만 1세 25명(10.0%), 만 5세 7명(2.8%), 6개월 이후 4명(1.6%), 6개월 이전 2명(0.8%)으로 전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보육시설에 다니기 시작한 영·유아가 39.4%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반일반 158명(67.7%), 종일반 69명(29.4%), 시간 연장반 4명(1.7%), 기타 3명(1.3%) 등으로 반일반이 67.7%로 가장 많았다.

### 3) 급식운영 현황

부모를 통해 알아본 자녀의 보육시설 급식운영에 대한 조사는 Table 3과 같다. 자녀의 보육시설에서 급식 실시 여부와 급식제공 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직영형태(94.0%)로 100%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using the child care centers

	Foundation type				Total	$\chi^2$
	National public	Corporation	Private	Home care		
Age of children (Years) <sup>2)</sup>	6 - 11 months	0 ( 0.0) <sup>1)</sup>	0 ( 0.0)	0 ( 0.0)	2 ( 2.9)	30.818***
	1	0 ( 0.0)	0 ( 0.0)	1 ( 0.7)	4 ( 5.8)	
	2	0 ( 0.0)	2 ( 3.6)	14 ( 10.2)	21 ( 30.4)	
	3	7 ( 30.4)	13 ( 23.6)	23 ( 16.8)	17 ( 24.6)	
	4	1 ( 4.3)	13 ( 23.6)	33 ( 24.1)	14 ( 20.3)	
	5	15 ( 65.2)	27 ( 49.1)	66 ( 48.2)	11 ( 15.9)	
Beginning of child care centers (Years) <sup>2)</sup>	Under 6 months	0 ( 0.0)	0 ( 0.0)	0 ( 0.0)	2 ( 3.1)	17.295***
	6 - 11 months	0 ( 0.0)	0 ( 0.0)	1 ( 0.9)	3 ( 4.7)	
	1	0 ( 0.0)	2 ( 4.3)	9 ( 7.7)	14 ( 21.9)	
	2	5 ( 23.8)	9 ( 19.1)	24 ( 20.5)	21 ( 32.8)	
	3	7 ( 33.3)	26 ( 55.3)	52 ( 44.4)	13 ( 20.0)	
	4	6 ( 28.6)	10 ( 21.3)	28 ( 23.9)	10 ( 15.6)	
Child care centers use time	Half time	15 ( 75.0)	34 ( 73.9)	79 ( 69.9)	30 ( 53.6)	10.357
	Full time	5 ( 25.0)	11 ( 23.9)	29 ( 25.7)	24 ( 42.9)	
	Time extension	0 ( 0.0)	0 ( 0.0)	3 ( 2.7)	1 ( 1.8)	
	The others	0 ( 0.0)	1 ( 2.2)	1 ( 0.9)	1 ( 1.8)	
	No answer	0 ( 0.0)	0 ( 0.0)	1 ( 0.9)	0 ( 0.0)	
Total	20 (100.0)	46 (100.0)	113 (100.0)	56 (100.0)	235 (100.0)	

1) N (%)

2) Double answer

\*\*\*:  $p < 0.001$

**Table 3.** The present status of foodservice in child care centers

	Foundation type				Total	$\chi^2$	
	National public	Corporation	Private	Home care			
Foodservice operation	Yes	20 (100.0) <sup>1)</sup>	46 (100.0)	113 (100.0)	56 (100.0)	235 (100.0)	
Foodservice type	Direct management	19 ( 95.0)	45 ( 97.8)	105 ( 92.9)	52 ( 92.9)	221 ( 94.0)	7.907
	Commission	1 ( 5.0)	1 ( 2.2)	3 ( 2.7)	4 ( 7.1)	9 ( 3.8)	
	Lunch basket	0 ( 0.0)	0 ( 0.0)	3 ( 2.7)	0 ( 0.0)	3 ( 1.3)	
	No answer	0 ( 0.0)	0 ( 0.0)	2 ( 1.8)	0 ( 0.0)	2 ( 0.9)	
Foodservice frequency (per day)	Once	9 ( 45.0)	33 ( 71.7)	53 ( 46.9)	18 ( 32.1)	113 ( 48.1)	25.547**
	Twice	9 ( 45.0)	13 ( 28.3)	57 ( 50.4)	36 ( 64.3)	115 ( 48.9)	
	Three times	2 ( 10.0)	0 ( 0.0)	1 ( 0.9)	2 ( 3.6)	5 ( 2.1)	
	No answer	0 ( 0.0)	0 ( 0.0)	2 ( 1.8)	0 ( 0.0)	2 ( 0.9)	
Cost of foodservice (won)	Under 1,000	3 ( 15.0)	2 ( 4.3)	5 ( 4.4)	7 ( 12.5)	17 ( 7.2)	20.679
	1,000~1,500	3 ( 15.0)	11 ( 23.9)	26 ( 23.0)	8 ( 14.3)	48 ( 20.4)	
	1,500~2,000	7 ( 35.0)	14 ( 30.4)	36 ( 31.9)	8 ( 14.3)	65 ( 27.7)	
	2,000~2,500	1 ( 5.0)	7 ( 15.2)	15 ( 13.3)	8 ( 14.3)	31 ( 13.2)	
	Over 2,500	3 ( 15.0)	5 ( 10.9)	7 ( 6.2)	6 ( 10.7)	21 ( 8.9)	
	Do not know	3 ( 15.0)	7 ( 15.2)	24 ( 21.2)	19 ( 33.9)	53 ( 22.6)	
Eco-organic foodservice	Full foodservice	5 ( 25.0)	10 ( 21.7)	32 ( 28.3)	19 ( 33.9)	66 ( 28.1)	7.060
	Partial support foodservice	2 ( 10.0)	3 ( 6.5)	7 ( 6.2)	2 ( 3.6)	14 ( 6.0)	
	No	4 ( 20.0)	19 ( 41.3)	33 ( 29.2)	13 ( 23.2)	69 ( 29.4)	
	Do not know	9 ( 45.0)	14 ( 30.4)	41 ( 36.3)	22 ( 39.3)	86 ( 36.6)	
Dietitian employment	Yes	12 ( 60.0)	25 ( 54.3)	44 ( 38.9)	10 ( 17.9)	91 ( 38.7)	20.973**
	No	8 ( 40.0)	19 ( 41.3)	60 ( 53.1)	43 ( 76.9)	130 ( 55.3)	
	Do not know	0 ( 0.0)	2 ( 4.3)	9 ( 8.0)	3 ( 5.4)	14 ( 6.0)	
Dietitian's foodservice guidance participation	Yes	8 ( 40.0)	15 ( 32.6)	34 ( 30.1)	10 ( 17.9)	67 ( 28.5)	5.990
	No	10 ( 50.0)	23 ( 50.0)	51 ( 45.1)	32 ( 57.1)	116 ( 49.4)	
	Do not know	2 ( 10.0)	8 ( 17.4)	28 ( 24.8)	14 ( 25.0)	52 ( 22.1)	
Total		20 (100.0)	46 (100.0)	113 (100.0)	56 (100.0)	235 (100.0)	

1) N (%)  
 \*\*: p < 0.01

급식제공 횟수는 ‘2회/일’ 115명 (48.9%), ‘1회/일’ 113명 (48.1%), ‘3회/일’ 5명 (2.1%)으로 ‘2회/일’ 급식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p < 0.01), 보육시설 급식비는 ‘1,500~2,000원 미만’ 65명 (27.7%), ‘1,000~1,500원 미만’ 48명 (20.4%), ‘2,000~2,500원 미만’ 31명 (13.2%), ‘2,500원 이상’ 21명 (8.9%), ‘1,000원 이하’ 17명 (7.2%)으로 응답하여 ‘1,500~2,000원 미만’ 일 것이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았다. 친환경 유기농 급식의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시하지 않는다' 69명 (29.4%), '전체 실시한다' 66명 (28.1%), '일부 지원 실시한다' 14명 (6.0%)로 실시하지 않는 시설이 2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36.6%로 나타나 상당수의 부모들은 보육시설의 친환경급식의 실시여부에 대하여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영양사 유무의 질문에는 ‘없다’ 130명 (55.3%), ‘있다’ 91명 (38.7%)으

로 조사되었다 (p < 0.01).

또한 영양사가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영양사의 보육시설에서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 한다’ 116명 (49.4%), ‘한다’ 67명 (28.5%), ‘모른다’ 52명 (22.1%)으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메뉴만 제공하는 형태가 49.4%로 조사되었다.

## 2. 부모들의 인식도

### 1) 보육시설 및 급식에 대한 인식도

보육시설과 급식에 대해 부모들의 인식과 견해는 Table 4와 같다. 보육시설의 설립주체에 따라 분류된 유형에 대한 인식은 ‘조금 알고 있다’ 131명 (55.7%), ‘알고 있다’ 57명 (24.3%), ‘모른다’ 46명 (19.6%)로 많은 부모 (80.0%)가 보육시설의 설립형태를 알고 있었으며 (p < 0.001). 시설유형에 따른 부모들의 선호도는 국·공립 117명 (49.8%), 법

**Table 4.** Parents' recognition of child care centers & foodservice in child care centers

		Foundation type				Total	$\chi^2$
		National public	Corporation	Private	Home care		
Recognition of child care center types	Know well	8 ( 40.0) <sup>1)</sup>	6 ( 13.0)	32 ( 28.3)	11 ( 19.6)	57 ( 24.3)	11.918
	Know little	10 ( 50.0)	31 ( 67.4)	61 ( 54.0)	29 ( 51.8)	131 ( 55.7)	
	Do not	2 ( 10.0)	9 ( 19.6)	19 ( 16.8)	16 ( 28.6)	46 ( 19.6)	
	No answer	0 ( 0.0)	0 ( 0.0)	1 ( 0.9)	0 ( 0.0)	1 ( 0.4)	
Perferred type	National	18 ( 90.0)	17 ( 37.0)	63 ( 55.8)	19 ( 33.9)	117 ( 49.8)	114.158***
	Corporation	0 ( 0.0)	26 ( 56.5)	13 ( 11.5)	6 ( 10.7)	45 ( 19.1)	
	Private	1 ( 5.0)	1 ( 2.2)	28 ( 24.8)	7 ( 12.5)	37 ( 15.7)	
	Home care	0 ( 0.0)	0 ( 0.0)	2 ( 1.8)	16 ( 28.6)	18 ( 7.7)	
	No answer	1 ( 5.0)	2 ( 4.3)	7 ( 6.2)	8 ( 14.3)	18 ( 7.7)	
The reason of choice <sup>2)</sup>	After visit	15 ( 75.0)	33 ( 62.3)	66 ( 55.9)	38 ( 65.5)	152 ( 61.0)	6.787*
	Neighbor's recommendation	2 ( 10.0)	14 ( 26.4)	28 ( 23.7)	15 ( 25.9)	59 ( 23.7)	
	Elder kids'	1 ( 5.0)	3 ( 5.7)	12 ( 10.2)	0 ( 0.0)	16 ( 6.4)	
	Leaflet	1 ( 5.0)	2 ( 3.8)	5 ( 4.2)	1 ( 1.7)	9 ( 3.6)	
	The others	1 ( 5.0)	1 ( 1.9)	7 ( 5.9)	4 ( 6.9)	13 ( 5.2)	
Reason of foodservice necessity	Improvement of table manners & eating habit	12 ( 46.2)	27 ( 45.7)	64 ( 44.8)	27 ( 38.0)	130 ( 43.5)	17.577**
	Balanced nutrition	8 ( 30.8)	19 ( 32.2)	45 ( 31.5)	24 ( 33.8)	96 ( 32.1)	
	Convenience meal preparation	4 ( 15.4)	11 ( 18.6)	26 ( 18.1)	10 ( 14.1)	51 ( 17.1)	
	A meal with even quality	1 ( 3.8)	2 ( 3.4)	7 ( 4.9)	4 ( 5.6)	14 ( 4.7)	
	Low priced foodservice	0 ( 0.0)	0 ( 0.0)	0 ( 0.0)	5 ( 7.0)	5 ( 1.7)	
	Children's preference	1 ( 3.8)	0 ( 0.0)	0 ( 0.0)	0 ( 0.0)	1 ( 0.3)	
	No answer	0 ( 0.0)	0 ( 0.0)	1 ( 0.7)	1 ( 1.4)	2 ( 0.7)	
Important things in foodservice <sup>2)</sup>	Nutrition	13 ( 54.2)	28 ( 48.3)	75 ( 52.4)	34 ( 46.6)	150 ( 50.2)	3.993
	Hygiene	8 ( 33.3)	25 ( 43.1)	63 ( 44.1)	32 ( 43.8)	128 ( 42.8)	
	Taste	3 ( 12.5)	5 ( 8.6)	5 ( 3.5)	5 ( 6.8)	18 ( 6.0)	
	Price	0 ( 0.0)	0 ( 0.0)	1 ( 0.7)	1 ( 1.4)	2 ( 0.7)	
	Preference	0 ( 0.0)	0 ( 0.0)	0 ( 0.0)	1 ( 1.4)	1 ( 0.3)	
Important to affect on children's body and mind development	Never	1 ( 5.0)	0 ( 0.0)	0 ( 0.0)	0 ( 0.0)	1 ( 0.4)	19.304*
	Not	1 ( 5.0)	0 ( 0.0)	2 ( 1.8)	0 ( 0.0)	3 ( 1.3)	
	Average	4 ( 20.0)	9 ( 19.6)	17 ( 15.0)	13 ( 23.2)	43 ( 18.3)	
	important	9 ( 45.0)	25 ( 54.3)	49 ( 43.4)	25 ( 44.6)	108 ( 46.0)	
	Very important	5 ( 25.0)	12 ( 26.1)	45 ( 39.8)	18 ( 32.1)	80 ( 34.0)	
Total		20 (100.0)	46 (100.0)	113 (100.0)	56 (100.0)	235 (100.0)	

1) N (%)

2) Double answer

\*: p < 0.05, \*\*\*: p < 0.001

인 45명(19.1%), 민간개인 37명(15.7%), 가정 18명(7.7%)으로 전체 응답자 중 49.8%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을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직접방문’ 152명, ‘이웃의 소개’ 59명(23.7%), ‘큰 아이가 다닌 시설’ 16명(6.4%), ‘어린이집 홍보 전단지’ 9명(3.6%)으로 직접방문(61.0%)하여 보육시설의 환경을 확인한 후 선택하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보육시설에서 급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

한 질문에 ‘식사에절과 식습관 개선’ 130명(43.5%), ‘균형 잡힌 영양공급’ 96명(32.1%), ‘식사준비의 번거로움 감소’ 51명(17.1%), ‘동일한 식사’ 14명(4.7%) 등으로 응답하였다(p < 0.01).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영양 150명(50.2%), 위생 128명(42.8%), 맛 18명(6.0%), 가격 2명(0.7%), 기호도 1명(0.3%) 순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부모들이 영양과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급식이 영·유아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들의 생각은 ‘중요하다’ 108명 (46.0%), ‘매우 중요하다’ 80명 (34.0%), ‘보통이다’ 43명 (18.3%)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80.0%)가 대다수였다.

**2) 급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및 가정에서의 영·유아 식생활 관리**

보육시설 급식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가정에서의 영유아 식생활관리에 대한 내용은 Table 5와 같다. 보육시설에서 식단이나 급식관련 통신문의 제공여부에 대한 질문에 ‘있다’ 220명 (93.6%), ‘없다’ 13명 (5.5%)으로 대부분 (93.6%)의 시설에서 통신문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제공하

지 않는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는데 이 중 가정시설이 6명 (10.7%)으로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 $p < 0.05$ ). 자녀의 식사여부와 식사량을 매일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결과 ‘가끔 확인 한다’ 145명 (61.7%), ‘알 수 없다’ 43명 (18.3%), ‘매번 확인 한다’ 30명 (12.8%), ‘확인하지 않는다’ 17명 (7.2%)으로 가끔 확인하는 부모들이 61.7%로 가장 많았는데, 그릇이 세척되어 오는 관계로 확인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도 면담과정에서 나타났다 ( $p < 0.05$ ).

보육시설의 급식장소와 조리환경에 대해 부모들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 153명 (69.4%),

**Table 5.** Parents' interest in child care center foodservice & management of child· infant's nutrition & food habit at home

		Foundation type				Total	$\chi^2$
		National public	Corporation	Private	Home care		
Menu notice to parents	Yes	18 ( 90.0) <sup>1)</sup>	46 (100.0)	108 ( 95.6)	48 ( 85.7)	220 ( 93.6)	13.276*
	No	2 ( 10.0)	0 ( 0.0)	5 ( 4.4)	6 ( 10.7)	13 ( 5.5)	
	Do not know	0 ( 0.0)	0 ( 0.0)	0 ( 0.0)	2 ( 3.6)	2 ( 0.9)	
Confirmation of menu notice	Always	12 ( 60.0)	31 ( 67.4)	78 ( 69.0)	35 ( 62.5)	156 ( 66.4)	11.972
	Sometimes	6 ( 30.0)	15 ( 32.6)	33 ( 29.2)	16 ( 28.6)	70 ( 29.8)	
	Never	1 ( 5.0)	0 ( 0.0)	2 ( 1.8)	4 ( 7.1)	7 ( 3.0)	
Confirmation of children's food intake	Always	3 ( 15.0)	3 ( 6.5)	11 ( 9.7)	13 ( 23.2)	30 ( 12.8)	17.003*
	Sometimes	12 ( 60.0)	33 ( 71.7)	72 ( 63.7)	28 ( 50.0)	145 ( 61.7)	
	Never	3 ( 15.0)	1 ( 2.2)	6 ( 5.3)	7 ( 12.5)	17 ( 7.2)	
Recognition of eating and cooking environment in child care facilities	Known	18 ( 90.0)	33 ( 71.7)	75 ( 66.4)	27 ( 48.2)	153 ( 69.4)	16.638**
	Do not know	2 ( 10.0)	12 ( 26.1)	38 ( 33.6)	27 ( 48.2)	79 ( 33.6)	
	No answer	0 ( 0.0)	1 ( 2.2)	0 ( 0.0)	2 ( 3.6)	3 ( 1.3)	
Children's nutrition issue <sup>2)</sup>	Unbalanced diet	10 ( 47.6)	27 ( 54.0)	53 ( 42.7)	16 ( 30.8)	106 ( 41.2)	9.955**
	Lack of table manners	6 ( 28.6)	10 ( 20.0)	27 ( 21.8)	19 ( 36.5)	62 ( 24.1)	
	Excess intake of instant and processed food	2 ( 9.5)	2 ( 4.0)	15 ( 12.1)	14 ( 26.9)	33 ( 12.8)	
	Underweight	2 ( 9.5)	6 ( 12.0)	15 ( 12.1)	3 ( 5.8)	26 ( 10.1)	
	No problem	1 ( 4.7)	2 ( 4.0)	9 ( 7.3)	4 ( 7.7)	16 ( 6.2)	
	Obesity	1 ( 4.7)	3 ( 6.0)	5 ( 4.0)	5 ( 9.6)	14 ( 5.4)	
Difficulties in children's meal management	Limit of menu	8 ( 36.4)	20 ( 38.5)	59 ( 46.1)	20 ( 28.6)	107 ( 39.3)	5.954
	Lack of nutrition knowledge	9 ( 40.9)	13 ( 25.0)	31 ( 24.2)	19 ( 27.1)	72 ( 26.5)	
	Difficult taste	2 ( 9.1)	12 ( 23.1)	15 ( 11.7)	10 ( 14.3)	39 ( 14.3)	
	Lack of time	2 ( 9.1)	4 ( 7.7)	13 ( 10.2)	11 ( 15.7)	30 ( 11.0)	
	Control of food expenses	0 ( 0.0)	3 ( 5.8)	7 ( 5.5)	4 ( 5.7)	14 ( 5.1)	
	The others	1 ( 4.5)	0 ( 0.0)	1 ( 0.8)	4 ( 5.7)	6 ( 2.2)	
Total		20 (100.0)	46 (100.0)	113 (100.0)	56 (100.0)	235 (100.0)	

1) N (%)

\*:  $p < 0.05$ , \*\*:  $p < 0.01$

‘모른다’ 79명 (33.6%)으로 절반 이상(69.4%)의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급식장소와 조리환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1).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영양문제로는 ‘편식’ 106명 (41.2%), ‘식사에절부족’ 62명 (24.1%), ‘가공·인스턴트 과잉섭취’ 33명 (12.8%), ‘저체중’ 26명 (10.1%), ‘비만’ 14명 (5.4%)으로 편식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p < 0.01). 가정에서 자녀의 식생활 관리 시 어려운 점은 ‘메뉴의 한계’ 107명 (39.3%), ‘영양지식부족’ 72명 (26.5%), ‘까다로운 식성’ 39명 (14.3%), ‘시간부족’ 30명 (11.0%), ‘식비조절’ 14명 (5.1%)으로 중복응답 한 가운데 메뉴의 한계를 가장 많이 들었다.

### 3. 부모의 만족도

#### 1) 보육시설 및 급식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5점 척도로 조사한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와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6과 같다. 전반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볼때 ‘보육교사’ 3.45점, ‘시설관리’ 3.44점, ‘위생관리’ 3.41점, ‘안전관리’ 3.40점, ‘교육프로그램’ 3.39점, ‘운영시간’ 3.29점, ‘특별활동’ 3.29점, ‘급간식’ 3.26점, ‘교육비용’ 2.86점으로 나타났으며, 순위로는 보육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3.45점으로 가장 높고, 교육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2.8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급 간식에 대한 만족도는 3.26점으로 나타났다.

급식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식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123명 (52.3%), ‘만족’ 85명 (36.2%), ‘불만

**Table 6.** Parents' satisfaction on management system & foodservice of child care centers

	Foundation type				Total	F-value	
	National public	Corporation	Private	Home care			
Childcare teacher	3.40 ± 0.82 <sup>1)</sup>	3.46 ± 0.72	3.50 ± 0.71	3.38 ± 0.82	3.45 ± 0.75	0.357	
Facilities & equipment	3.60 ± 0.75 <sup>a2)</sup>	3.46 ± 0.66 <sup>b</sup>	3.53 ± 0.77 <sup>c</sup>	3.20 ± 0.88 <sup>d</sup>	3.44 ± 0.78	2.645*	
Hygiene management	3.70 ± 0.73	3.41 ± 0.65	3.44 ± 0.78	3.25 ± 0.79	3.41 ± 0.76	1.890	
Safety management	3.55 ± 0.83	3.43 ± 0.54	3.42 ± 0.75	3.29 ± 0.85	3.40 ± 0.75	0.776	
Education program	3.05 ± 1.00	3.41 ± 0.62	3.49 ± 0.67	3.30 ± 0.76	3.39 ± 0.72	2.484	
Operating hours	3.10 ± 0.97	3.30 ± 0.89	3.30 ± 0.94	3.30 ± 1.03	3.29 ± 0.95	0.273	
Extracurricular activities	3.15 ± 0.67	3.33 ± 0.60	3.31 ± 0.84	3.25 ± 1.10	3.29 ± 0.85	0.264	
Foodservice & snack	3.45 ± 1.05	3.30 ± 0.81	3.27 ± 0.73	3.14 ± 0.82	3.26 ± 0.80	0.827	
Education expenses	3.5 ± 0.95 <sup>a</sup>	2.98 ± 0.95 <sup>b</sup>	2.65 ± 0.86 <sup>c</sup>	2.95 ± 1.02 <sup>b</sup>	2.86 ± 0.95	5.438***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menu	Very satisfied	3 ( 15.0) <sup>3)</sup>	2 ( 4.3)	3 ( 2.7)	3 ( 5.4)	11 ( 4.7)	10.514
	Satisfied	6 ( 30.0)	14 ( 30.4)	47 ( 41.6)	18 ( 32.1)	85 ( 36.2)	
	Average	10 ( 50.0)	28 ( 60.9)	56 ( 49.6)	29 ( 51.8)	123 ( 52.3)	
	Dissatisfied	1 ( 5.0)	2 ( 4.3)	6 ( 5.3)	5 ( 8.9)	14 ( 6.0)	
	Very dissatisfied	0 ( 0.0)	0 ( 0.0)	1 ( 0.9)	1 ( 1.8)	2 ( 0.9)	
Dissatisfaction item on menu	No variation in menu	3 ( 13.1)	6 ( 17.1)	23 ( 27.7)	7 ( 17.5)	39 ( 22.8)	6.714
	No preference reflection	3 ( 23.1)	10 ( 28.6)	16 ( 19.3)	6 ( 15.0)	35 ( 20.5)	
	Poor meal	0 ( 0.0)	5 ( 14.3)	18 ( 21.7)	9 ( 22.5)	32 ( 18.7)	
	Not natural food	4 ( 30.8)	4 ( 11.4)	16 ( 19.3)	3 ( 7.5)	27 ( 15.8)	
	Not nutritious menu	2 ( 15.4)	7 ( 20.0)	5 ( 6.0)	8 ( 20.0)	22 ( 12.9)	
	Not children's menu	1 ( 7.7)	3 ( 8.57)	5 ( 6.0)	7 ( 17.5)	16 ( 9.4)	
Level of food expenses	Very cheap	1 ( 5.0)	4 ( 8.7)	0 ( 0.0)	3 ( 5.4)	8 ( 3.4)	25.336*
	Cheap	4 ( 20.0)	5 ( 10.9)	8 ( 7.1)	5 ( 8.9)	22 ( 9.4)	
	Average	11 ( 55.0)	26 ( 56.5)	76 ( 67.3)	33 ( 58.9)	146 ( 62.1)	
	Expensive	1 ( 5.0)	5 ( 10.9)	23 ( 20.4)	12 ( 21.4)	41 ( 17.4)	
	Very expensive	1 ( 5.0)	0 ( 0.0)	2 ( 1.8)	0 ( 0.0)	3 ( 1.3)	
	No answer	2 ( 10.0)	6 ( 13.0)	4 ( 3.5)	3 ( 5.4)	15 ( 6.4)	
Total	20 (100.0)	46 (100.0)	113 (100.0)	56 (100.0)	235 (100.0)		

1) Mean ± SD

2) a, b: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N (%)

\*: p < 0.05, \*\*\*: p < 0.001



족' 14명(6.0%), '매우 만족' 11명(4.7%), '매우 불만족' 2명(0.9%)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식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그 이유로는 '메뉴 가짓수가 적다' 39명(22.8%), '기호도 반영이 안 되었다' 35명(20.5%), '급식비에 비해 빈약하다' 32명(18.7%), '자연식이 아니다' 27명(15.8%), '영양식단이 아니다' 22명(12.9%), '아이들의 식단이 아니다' 16명(9.4%)으로 '메뉴의 가짓수가 적다'는 부모들의 의견(72.8%)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식비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는 '보통이다' 146명(62.1%), '비싸다' 41명(17.4%), '저렴하다' 22명(9.4%), '매우 저렴하다' 8명(3.4%), '매우 비싸다' 3명(1.3%)으로 '보통' 수준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62.1%로 가장 많았으나, 비싸다(18.7%)는 의견이 저렴하다(12.8%)는 의견보다는 높게 나타났다(p < 0.01).

2) 급식에 대한 영·유아의 만족도 및 식 행동 변화

어머니를 통해 평소 자녀의 급식에 대한 반응과 급식 이후 변화에 대해 조사내용은 Table 7과 같다.

원에서 돌아온 자녀를 통해 느낀 만족도는 '보통' 149명(63.4%), '만족' 64명(27.2%), '불만족' 13명(5.5%), '매우 만족' 6명(2.6%), '매우 불만족' 2명(0.9%)으로 '보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급식 후 자녀의 식 행동 변화 여부에 대해 '있다' 122명(51.9%), '없다' 113명(48.1%)으로 응답하였으며(p <

0.01), 구체적으로 변화된 식 행동으로는 '편식교정' 50명(33.6%), '식사예절' 37명(24.8%), '식사 후 정리정돈' 30명(20.1%), '식사 전 손 씻기' 19명(12.8%)으로 '편식교정'이 가장 많이 변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01).

4. 부모의 요구도

1) 급식 개선에 대한 요구

보육시설 급식 개선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는 Table 8과 같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급식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균형 잡힌 식단구성' 89명(32.8%), '우수한 식재료 사용' 49명(18.1%), '영양교육' 40명(14.8%), '아이들의 기호도 반영' 33명(12.2%), '위생적인 조리' 30명(11.1%), '배식 량' 11명(4.1%), '없다' 10명(3.7%), '맛' 9명(3.3%)으로 '식단구성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견(32.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14.8%)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영·유아를 위한 식생활 교육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교육여부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Table 9와 같다.

보육시설에서 자녀가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모른다' 174명(74.0%), '아니오' 36명(15.3%), '예' 23명(9.8%)으로 조사되어 보육시설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부모가 74.0%로 가장 많았으며, 시

Table 7. Children satisfaction of foodservice & eating behavior change

		Foundation type				Total	χ <sup>2</sup>
		National public	Corporation	Private	Home care		
Foodservice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0 ( 0.0) <sup>1)</sup>	1 ( 2.2)	1 ( 0.9)	0 ( 0.0)	2 ( 0.9)	9.739
	Dissatisfied	1 ( 5.0)	1 ( 2.2)	7 ( 6.2)	4 ( 7.1)	13 ( 5.5)	
	Average	13 ( 65.0)	30 ( 65.2)	68 ( 60.2)	38 ( 67.9)	149 ( 63.4)	
	Satisfied	5 ( 25.0)	14 ( 30.4)	34 ( 30.1)	11 ( 19.6)	64 ( 27.2)	
	Very satisfied	1 ( 5.0)	0 ( 0.0)	2 ( 1.8)	3 ( 5.4)	6 ( 2.6)	
	No answer	0 ( 0.0)	0 ( 0.0)	1 ( 0.9)	0 ( 0.0)	1 ( 0.4)	
Eating behavior change	Yes	10 ( 50.0)	33 ( 71.7)	53 ( 46.9)	26 ( 46.4)	122 ( 51.9)	9.084**
	No	10 ( 5.0)	13 ( 28.3)	60 ( 53.1)	30 ( 53.6)	113 ( 48.1)	
Changed eating behavior	Unbalanced diet correction	4 ( 36.4)	17 ( 44.7)	25 ( 35.7)	4 ( 13.3)	50 ( 33.6)	35.044***
	Table manners	3 ( 27.3)	11 ( 28.9)	13 ( 18.6)	10 ( 33.3)	37 ( 24.8)	
	Arrangement after eating	1 ( 9.1)	8 ( 21.1)	18 ( 25.7)	3 ( 10.0)	30 ( 20.1)	
	Wash hands before eating	3 ( 27.3)	1 ( 2.6)	8 ( 11.4)	7 ( 23.3)	19 ( 12.8)	
	The others	0 ( 0.0)	1 ( 2.6)	6 ( 8.6)	6 ( 20.0)	13 ( 8.7)	
Total		20 (100.0)	46 (100.0)	113 (100.0)	56 (100.0)	235 (100.0)	

1) N (%)  
 \*\*: p < 0.01, \*\*\*: p < 0.001

**Table 8.** Points that should be improve in child care centers foodservice

	Foundation type				Total	$\chi^2$	
	National public	Corporation	Private	Home care			
Points that should be improve <sup>2)</sup>	Balanced menu	4 ( 19.0)	24 ( 47.1)	37 ( 28.9)	24 ( 33.8)	89 ( 32.8)	8.569*
	Fresh food material usage	3 ( 14.3) <sup>1)</sup>	7 ( 13.7)	28 ( 21.9)	11 ( 15.5)	49 ( 18.1)	
	Nutrition education	6 ( 28.6)	3 ( 5.9)	22 ( 17.2)	9 ( 12.7)	40 ( 14.8)	
	Children's preference	3 ( 14.3)	4 ( 7.8)	14 ( 10.9)	12 ( 16.9)	33 ( 12.2)	
	Hygiene management of cooking	1 ( 4.8)	9 ( 17.6)	12 ( 9.4)	8 ( 11.3)	30 ( 11.1)	
	Quantities of serving size	1 ( 4.8)	0 ( 0.0)	8 ( 6.3)	2 ( 2.8)	11 ( 4.1)	
	None	1 ( 4.8)	3 ( 5.9)	3 ( 2.3)	3 ( 4.2)	10 ( 3.7)	
	Taste	2 ( 9.5)	1 ( 2.0)	4 ( 3.1)	2 ( 2.8)	9 ( 3.3)	
Total	20 (100.0)	46 (100.0)	113 (100.0)	56 (100.0)	235 (100.0)		

1) N (%)  
\*: p < 0.05

**Table 9.** Children's education on nutrition & dietary life in child care centers

	Foundation type				Total	$\chi^2$	
	National public	Corporation	Private	Home care			
Periodical nutrition education	Yes	3 ( 15.0) <sup>1)</sup>	6 ( 13.0)	9 ( 8.0)	5 ( 8.9)	23 ( 9.8)	11.668
	No	4 ( 20.0)	4 ( 8.7)	24 ( 21.2)	4 ( 7.1)	36 ( 15.3)	
	Do not know	13 ( 65.0)	35 ( 76.1)	80 ( 70.8)	46 ( 82.1)	174 ( 74.0)	
	No answer	0 ( 0.0)	1 ( 2.2)	0 ( 0.0)	1 ( 1.8)	2 ( 0.9)	
Food habit education	Yes	18 ( 90.0)	43 ( 93.5)	109 ( 96.5)	50 ( 89.3)	220 ( 93.6)	14.932*
	No	0 ( 0.0)	0 ( 0.0)	0 ( 0.0)	2 ( 3.6)	2 ( 0.9)	
	Do not know	2 ( 10.0)	1 ( 2.2)	3 ( 2.7)	4 ( 7.1)	10 ( 4.3)	
	No answer	0 ( 0.0)	2 ( 4.3)	1 ( 0.9)	0 ( 0.0)	3 ( 1.3)	
Nutrition educator	Dietitian	13 ( 65.0)	32 ( 69.6)	79 ( 69.9)	37 ( 66.1)	161 ( 68.5)	10.148
	Teacher	5 ( 25.0)	11 ( 23.9)	18 ( 15.9)	10 ( 17.9)	44 ( 18.7)	
	Director	2 ( 10.0)	2 ( 4.3)	15 ( 13.3)	9 ( 16.1)	28 ( 11.9)	
	Parent	0 ( 0.0)	0 ( 0.0)	1 ( 0.9)	0 ( 0.0)	1 ( 0.4)	
	No answer	0 ( 0.0)	1 ( 2.2)	0 ( 0.0)	0 ( 0.0)	1 ( 0.4)	
Nutrition education contents	Balanced food intake	9 ( 18.8)	30 ( 27.8)	73 ( 26.7)	34 ( 27.4)	146 ( 26.4)	4.952
	Right eating habit	14 ( 29.2)	25 ( 23.1)	62 ( 22.7)	31 ( 2.5)	132 ( 23.9)	
	Safety food intake	7 ( 14.6)	17 ( 15.7)	46 ( 16.8)	19 ( 15.3)	89 ( 16.1)	
	Right table establishment	8 ( 16.7)	12 ( 11.1)	29 ( 10.6)	17 ( 13.7)	66 ( 11.9)	
	Nutrition & illness	6 ( 12.5)	11 ( 10.2)	34 ( 12.5)	13 ( 10.5)	64 ( 11.6)	
	Nutrient's role	3 ( 6.3)	8 ( 7.4)	19 ( 7.0)	6 ( 4.8)	36 ( 17.4)	
	Weight management	1 ( 2.1)	4 ( 3.7)	10 ( 3.7)	4 ( 3.2)	19 ( 3.4)	
	No answer	0 ( 0.0)	1 ( 0.9)	0 ( 0.0)	0 ( 0.0)	1 ( 0.2)	
Total	20 (100.0)	46 (100.0)	113 (100.0)	56 (100.0)	235 (100.0)		

1) N (%)  
\*: p < 0.05 \*\*: p < 0.01 \*\*\*: p < 0.001

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보육시설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220명 (93.6%), ‘잘 모르겠다’ 10명 (4.3%), ‘필요없다’ 2명 (0.9%)으로 93.6%의 부모들이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때 영양교육의 책임자로는 영양사 37

명 (66.1%), 보육교사 44명 (18.7%), 원장 28명 (11.9%), 학부모 1명 (0.4%)으로 영양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6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균형 잡힌 식품섭취’ 146명 (26.4%), ‘올바른 식습관’ 132명 (23.9%), ‘영양소의 역

**Table 10.** Parents' education & participation in child care centers

		Foundation type				Total	$\chi^2$
		National public	Corporation	Private	Home care		
Education on foodservice, nutrition, food habit	Yes	7 ( 35.0) <sup>1)</sup>	9 ( 19.6)	22 ( 19.5)	8 ( 14.3)	46 ( 19.6)	12.332*
	No	13 ( 65.0)	35 ( 76.1)	91 ( 80.5)	48 ( 85.7)	187 ( 79.6)	
	No answer	0 ( 0.0)	2 ( 4.3)	0 ( 0.0)	0 ( 0.0)	2 ( 0.9)	
Food habit educational necessity for children	Want	18 ( 90.0)	36 ( 78.3)	104 ( 92.0)	51 ( 91.1)	209 ( 88.9)	11.932*
	Do not want	2 ( 10.0)	8 ( 17.4)	9 ( 8.0)	5 ( 8.9)	24 ( 10.2)	
	No answer	0 ( 0.0)	2 ( 4.3)	0 ( 0.0)	0 ( 0.0)	2 ( 0.9)	
Total		20 (100.0)	46 (100.0)	113 (100.0)	56 (100.0)	235 (100.0)	

1) N (%)  
\*: p < 0.05

할' 36명(17.4%), '안전한 식품의 섭취' 89명(16.1%), '바른 식사에질 확립' 66명(11.9%), '영양과 질병' 64명(11.6%), '체중관리' 19명(3.4%)으로 '균형 잡힌 식품섭취'와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다수의 부모가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급식에 대한 부모교육**

부모교육에 대한 실시 및 희망여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Table 10과 같다.

보육시설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영양,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 187명(79.6%), '있다' 46명(19.6%)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79.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자녀를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원한다' 209명(88.9%), '원하지 않는다' 24명(10.2%)으로 다수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고 찰**

본 연구는 앞서 보육시설 급식 운영실태 및 위생실태를 조사하였던 보육시설에 대해 이곳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시 응답자는 어머니로 대졸이상의 30대 젊은 층이 많고, 영유아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공무원 및 회사원(41.3%)이 많았으며(p < 0.05), 어머니는 주로 전업주부(72.3%)가 많았다. 충북지역 어린이 급식품질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Lee & Lee 2006)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직업 모(55.6%)의 경우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위해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았더니 충북지역의 가정수입은 250~300 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평균수입은 300~400 만원으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어 가계수입이 자녀의 교육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2005년 시행된 천안·아산지역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 연구 결과(Lee 2005)에서는 고졸학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 부모들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됨을 볼 수 있었으며, 과거에는 직업모일 경우에만 아이들의 육아를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으나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문화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주부의 경제활동이 없어도 보육시설에 육아를 맡기는 추세이다(Han & Chung 2005). 취업모와 비취업모는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달라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다를 뿐 아니라 비취업모라 할지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전문화되어가고 영유아교육을 어머니 혼자 모두 감당하기에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Hwang & Jung 2008).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만 3세부터가 39.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시설 유형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는 대부분의 국·공립 및 민간개인시설의 입소 연령이 만 3세부터이며, 일부 민간개인시설에서는 만3세 이하의 영유아도 보육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36개월 이하는 영아 전담시설인 규모가 작은 가정시설에 위탁하는 경향이였다. Lee(2005)의 인근 천안지역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2세 이하의 영아는 가정보육시설에 많고, 2세~3세의 유아는 민간개인 보육시설에 많았으며, 3세~5세의 유아는 국·공립시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강원지역 취업모들의 보육이용실태조사(Hwang & Jung 2008)에서도 영아 시기에는 일부 민간개인시설에서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도 있으나 정원수가 작은 가정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급식은 대부분이 직영의 형태로 1일 2회 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많았고(p < 0.01), 급식비는 1,500~2,000 원 수준으로 앞서 시행된 보육시설 급식 운영 실태 연구(Song & Kim 2009)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보육시설 급식 관리자인 영양사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상

당수가 있다(38.7%)고 응답하였으며 시설 유형별 응답자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보육시설 영양사는 100인 이상 되는 시설에 고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규모가 큰 국 · 공립, 민간개인 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아산시 보육시설 급식운영 실태연구(Song & Kim 2009)와 충남보육시설통계(Chungnam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2007)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이 최근 폐 · 신소하는 민간 보육시설이 많으며 그 규모가 100인 이상 되는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정시설의 경우, 조리사를 “남남 선생님”이라고 호칭함에 따라 응답자의 경우 조리사를 영양사로 여기고 응답한 결과로도 여겨짐에 따라 부모교육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보육시설의 선택 경위에 대해서 많은 부모가 직접 방문(61.0%)한 후 결정한다는 높은 응답율로 보아 영 · 유아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으며( $p < 0.05$ ). 이 지역 부모들의 보육시설 유형별 선호도는 타 연구(Lee 2005; Hwang & Jung 2008)의 국 · 공립 선호도에 반해 민간개인시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최근 신설되는 민간시설의 쾌적한 보육 환경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강원지역 부모들은 법인보육시설(41.3%)을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은 국 · 공립이나 이러한 요구에 반해 시설수가 현저히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보고하고 있어(Hwang & Jung 2008) 본 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많은 부모들이 보육시설급식에 있어서 영양(50.2%)과 위생(42.8%)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급식이 미치는 영 · 유아의 심신발달에도 대다수의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80.0%)이라고 하여 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요구는 날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p < 0.05$ ). 특히 면역에 취약한 시기인 영아를 둔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응답율이 높아 시설 유형별 응답자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보육시설에서 매월, 매주 단위로 보내오는 급식가정통신문은 대부분의 시설(93.6%)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p < 0.05$ ), 제공하지 않는 시설이 소수 있었는데, 대개 가정시설이 해당되었다. 영 · 유아의 식사여부를 확인(61.7%)하는 부모들이 많았으나, 개인용 도시락이 세척되어 오는 관계로 확인의 필요성(18.3%)을 못 느낀다는 의견도 면담 과정에서 나타났다( $p < 0.05$ ). 언어전달이 가능한 시기인 만 4세 이후에는 아이를 통해 식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전달이 어려운 시기의 영아들의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 식단표와 원아수첩에 기록된 내용으로 밖에 확인할 방법

이 없는 실정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국 · 공립, 민간시설이용자와 평균연령이 낮은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부모들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집에서 느끼는 영 · 유아 자녀들의 영양문제로는 편식(41.2%)을 들었고, 어려운 점은 메뉴의 한계(39.3%)를 들었는데 이시기 아이들의 식사량이 적는데 반해 여러 가지 식재료를 구입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알 수 있다( $p < 0.05$ ). 아이의 연령이 식재료 구입 및 조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연령이 낮은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부모와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를 5점 척도 점수로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3.45점으로 가장 높고, 교육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2.8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급 간식에 대한 만족도는 3.26점을 나타내었다.

Lee(2005)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72%)는 응답을 보였으며, 시설 유형별로 국 · 공립과 가정보육시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민간개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모의 연령, 영 ·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인 부모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보육시설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Lee(2006)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59점 점수를 보였는데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라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영양사가 배치된 경우 3.93점인 반면,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평균 3.59점으로 나타나 부모들 또한 급식 전문 관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식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보육시설의 급식에서 제공되는 식단은 메뉴의 가짓수가 적다는 불만사항이 전체 조사대상의 72.8% 부모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를 통한 평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 · 유아의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보통수준이다’라는 의견을 보였으나, 보육시설에서 급식을 하면서 영 · 유아의 식 행동 등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편식교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 < 0.001$ ) 이는 다른 영유아대상의 복지시설의 급식이 주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Chang & Kim 2003)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시설 유형별 응답자간의 차이는 편식과 식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가 만2세를 전후하여 나타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Jung & Cho 2003). 보육시설 급식은 급속히 성장하는 영·유아에게 균형 있는 영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육을 하도록 하며, 일생에 걸친 식습관 형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며(Nam 2006), 식사라는 매개를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또한 기른다는 점에서 일반급식과의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보육시설에서의 효율적인 급식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급식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식단구성(32.8%)에 대한 개선이 가장 많았으며( $p < 0.05$ ),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도 14.8%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식사 후 이 닦기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소리 내지 않고 먹기’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과 아동발달에 맞는 영양권장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식사계획과 합리적인 급식 관리를 통한 식사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등 2006) 또한 올바른 영양교육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보육시설에서의 급식 실시는 아동들이 급식환경에 노출될수록 식 행동이 불량해지거나(Lee 2006), 영·유아에게 올바른 영양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영양불량을 예방하고 식습관과 식생활 태도, 위생개념의 영양지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Lee & Lee 2000)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은 전체 20.4% 정도로 인근 충북지역의 조사 결과 55% 보다 많이 부족한 수준이었다(Lee & Lee 2010). 한편 부모들은 88.9%가 식생활교육을 필요로 하였으며, 교육담당자로서는 영양사(66.1%)나 급식 관리자를 선택하였고, 가정에서도 연계하여 영·유아의 식생활 관리를 위한 부모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나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영양관리, 식단 조리법 등을 개발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부모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수혜자중심의 평가로써 보육서비스 수요자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보육서비스의 급식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한 층 더 살리기 위해 연구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보육시설 유형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나 시설유형별 재원아동 연령이 다르고 그 운영에 있어 규모 차이가 있어 연구에 제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보육서비스의 수혜자인 부모들의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를 통해 부모들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통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와 같은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요약 및 결론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산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시설 급식에 대한 부모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대부분은 어머니였고, 부모의 학력은 대졸이상의 30대 젊은 층이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공무원 및 회사원(41.3%), 어머니는 전업주부(72.3%)가 많았다( $p < 0.05$ ).

2) 보육시설 선택은 직접방문(61.0%)하여 결정하였고( $p < 0.05$ ), 부모들은 보육시설 급식에 있어서 영양(50.2%)과 위생(42.8%)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있었으며, 영·유아의 심신발달에 급식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80%)고 여겼다( $p < 0.05$ ).

3) 급식가정통신문은 대부분의 시설(93.6%)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p < 0.05$ ), 제공하지 않는 시설도 소수 있었다. 집에서 느끼는 영·유아들의 영양문제로는 편식(41.2%)을 들었고( $p < 0.01$ ), 어려운 점은 메뉴의 한계(39.3%)를 들었다.

4) 급식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급·간식에 대한 만족도는 3.26점을 나타냈으며, 식단 가짓수가 적다는 불만(72.8%)이 많았다. 부모를 통해 살펴본 영·유아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이었으며, 급식 후 영·유아의 식 행동 변화는 ‘편식교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01$ ).

5)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식단구성에 대한 개선 요구(32.8%)가 가장 많았다( $p < 0.05$ ), 또한 자녀의 식생활교육을 필요(88.9%)로 하였는데 교육적임자로는 영양사(66.1%)나 급식 관리자를 선택하였고, 가정에서의 영·유아 식생활 관리의 연계를 위해 부모교육도 희망하였다( $p < 0.05$ ).

현재 보육시설의 여건상 시설 유형별 다양한 규모와 운영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부모들의 요구도를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 및 각 지역별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유아를 위한 영양관리, 식단 조리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육시설 관계자와 부모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본적인 보육시설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마련에 따른 급식전문가를 통한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 Bae YM (1994): A study on nutrition education of day-care teachers. MS thesis, Chungang University, pp.49-52
- Chang ML, Kim YB (2003): A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kindergarten meals program. *J Korean Soc Early Childhood Educ* 23(3): 161-284
- Cho MS (2000): Nutrition and health status of day-care center children. *Korean J Diet Culture* 15(4): 313-323
- Chungnam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2007): The number of nurture facility and child status. Nurture statistics. Chungnam
- Hwang HK, Jung MM (2008): Difference between working mothers and non-working mothers in terms of childcare facility usage, satisfaction level and childcare service needs in Kangwon province. *Korea J Child Care & Educ* 53: 199-218
- Han YM, Chung HC (2005): Task of child-care for activation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Korea J Child Care & Educ* 41(6): 493-519
- Jung YK, Cho JS (2003): Nutrition and health of early childhood. Yangseowon, Paju, pp.181-263
- Kim EK, Bai YH, Yang IS, Ahn HJ (1993): Development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hat promotes eating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especially focused on being familiar with vegetable. *Korea J Diet Culture* 8(2): 125-137
- Kim EK, Kwak TK, Hong WS, Jang MR, Yoon GS, Lee ES, Iyn ES, Choi EH (1996): Assessment of foodservice management practices and nutritional adequacy of foods served in child-care centers. *Korean J Diet Culture* 11(2): 243-253
- Kim KA, Shim YH (1995): Cognitive performance and hyperactivity in terms of eating behavior and physical growth among preschool-ago children. *Korean J Diet Culture* 10(4): 255-268
- Koh EY (2001): A study of on foodservice of management of snacks and lunch in all day kindergartens. M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pp.32-38
- Lee BS (2006): The survey on the foodservice management system of the child care centers in Ansan. *Korean J Food & Nutr* 19(4): 435-447
- Lee YM, Lee KW (2000): A study on the nutritional evaluation and food service management of snack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8(4): 99-113
- Lee JE (2005): A study on the parental perception, satisfaction, needs of the day care centers in Cheonan-Asan area. *Korea J Child Care & Educ* 41: 111-136
- Lee JY, Lee SR (2006): Parent-teach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parental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on the use of child care service. *J Korean Assoc Human Ecol* 15(6): 905-917
- Lee KH, Park DY, Lee IY, Hong JY, Choi BC, Bea SS (2001): The survey on the nutrition education and foodservice managements system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in Yongdungpo. *J Korean Diet Assoc* 7(2): 167-174
- Lee MS, Lee JY, Yoon SH (2006): Assessment of foodservice management performance at child. *Korean J Community Nutr* 11(2): 229-239
- Lee JY, Lee YE (2010): Parents' Satisfaction on Foodservice Quality of Kindergartens in Chungbuk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9(4):613-623
- Nam HS (2006):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improvements of the foodservice management. MS thesis, Chongju University, pp.26-31
-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2008): The nurture facility evaluation authentication guide
- Park JS (1998):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hildcare and daycare policy in Korea. *Korean J Study Soc Welfare* 2: 109-128
- Rho JO, Lee EP, Lee JS (2009): Assessment of food service management practices in child care centers operated by various types of foundations in the Chonbok area of Korea. *Korean J Food Cookery* 25(1): 74-83
- Ryou HJ, Kim YJ, Nam HJ, Min YH, Park HR (2004): Analysis of food habits and nutrients intake of nursery school children living in Anyang city, based on Z-score of weight for height. *J Korean Diet Assoc* 10(1): 1-12
- Ryu WH, Park YJ (2003): A study on the foodservice management practices of child-care center in Bucheon. *J Korea Assoc Child & Educ* 31: 91-110
- Shin EK, Lee YK (2005): Menu development and evaluation through eating behavior and food preference of preschool children in day-care center. *Korean J Food Culture* 20(1): 1-14
- Song ES, Kim EK (2009): A survey on the foodservice management system of the child care centers in Chungnam Asan area. *Korean J Community Nutr* 14(6): 846-860